

내가 만난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 지난 2011년 만난 손정의 회장(왼쪽)과 함께
[전광우·손현덕 통쾌한 경제-61] 손정의 회장의 초청으로 그를 처음 만난 건 2011년 초였습니다. 오찬을 겸한 두어 시간 동안의 단독 면담은 아직도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만났던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피모건(JPM)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총자산 5조달러를 넘는 세계 1위 자산운용그룹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 등 기라성 같은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 중에서도 한국계 3세인 손 회장은 각별한 기억으로 남은 인물입니다.

작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애플, 쉘컴 등이 참여한 1000억달러 규모의 비전펀드를 설립한 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를 가능할 핵심 기업을 인수·합병(M&A) 하면서 소프트뱅크의 사업 전략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향후 제2, 3의 비전 펀드의 추가 조성을 통한 과감한 사업 확장계획도 알려지고 있지요. 일본 제1의 부호요 글로벌 CEO인 손 회장과 대화와 최근 행보를 통해 느낀 그의 경영 철학과 특유의 리더십을 되새겨 볼까 합니다.



첫째, 융합적 리더십입니다. 손 회장이 들려준 자신의 학력이나 소프트뱅크 회사 작명에서부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키워드인 융복합적 마인드가 담겨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에서 학부를 다닌 그는 경제학과 컴퓨터공학을 더블메이저(공동 전공)할 때부터 융합적 사고를 키웠고, 1981년 창업한 소프트뱅크(SoftBank)도 정보통신기술(ICT)의 뜻을 가진 'Soft'와 금융투자의 의미를 담은 'Bank'를 합쳐서 만들었다는 건 흥미로운 얘기였습니다. 금년 들어 세계 굴지의 재보험사인 스위스리(Swiss Re), 공유경제의 강자인 우버(Uber)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사업 영역을 넓히면서 제2의 워런 버핏으로 회자되기도 합니다.

둘째는 혁신과 비전의 리더십입니다. 손 회장과의 면담에서 그가 꺼냈던 미래사업의 화두는 인공지능(AI)과 로봇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AI는 지금처럼 일반화된 개념이 아니었는데 그는 이미 특히 고령화 추세와 연결된 AI로봇의 잠재력을 내다보고 있었지요. 오늘날 로봇 개발에서 일본이 국제경쟁력을 갖게 된 데 일조한 셈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일본 세계의 이단아로 여겨졌지만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간 혁신경영,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며 위축됐던 일본 경제를 휘젓는 '메기' 역할을 통해 역동성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영국 최대의 반도체 설계회사 ARM을 36조원에 인수,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선제적 투자도 눈길을 끌고요. 작년 출간된 '손정의 300년 왕국의 야망'은 그의 초장기 비전을 보여줍니다.

셋째로는 열정과 소통의 리더십입니다. 손 회장과 만난 두 시간 남짓 동안 그는 휴대용 컴퓨터를 켜고 식당 벽을 스크린 삼아 미래 사업비전에 대해 열강했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영어 구사 능력도 탁월해서 제가 만나본 일본 기업가들 중 가장 뛰어났습니다. 손 회장은 본래 60세 은퇴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최근 '힘이 넘쳐 은퇴를 못 하겠다'며 계획을 바꿀 정도로 신사업에 대한 열정이 넘칩니다. 자신의 꿈은 '아시아(Asia)에서 출발해 아메리카(America)로,

그리고 아프리카(Africa)까지'라는 말에 제가 '트리플 에이(AAA)' 비전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기억도 납니다.

끝으로 결단과 끈기의 리더십이 어떨까요. 이제는 전설이 된 알리바바 투자 스토리도 직접 들려줬습니다. 2000년에 중국 전자상거래(e-Commerce) 사업 설명을 마윈 회장에게서 5분 동안 들은 후 200억원 투자 결단을 내립니다. 2014년 미국 증시상장(IPO)으로 3000배 수익의 대박을 친 후에도 대부분 투자 지분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알리바바 지분은 현재 28%로 마윈 회장과 파트너 지분 합계인 10% 미만에 비해 압도적 최대주주로 남아 있지요. IPO 이후 주가는 계속 올라 현재 보유주식 평가액은 수익률 6000배에 달하는 120조 원이 넘습니다. 손 회장의 과감하고 통 큰 결단력, 그리고 긴 안목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번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최대 장난감 업체인 토이저러스(Toy "R" Us)가 미국 내 사업의 청산 절차를 밟는다는 충격적 보도를 했습니다. 토이저러스 파산으로 700개 매장과 3만3000개의 일자리가 날아가는 역대 가장 큰 소매업체 청산으로 기록된다는데요. 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린 게 결정적 원인으로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기회를 잘 살린 손 회장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손 회장에 대한 궁극적 평가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변혁기에 성공적인 한 페이지를 장식한 기업인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국민연금이사장]